

'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경 찰 청

국어 해설

-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

【국 어】

1. 다음 <보기> 중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 ㉡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죠.
- ㉢ 우리가 할 만큼은 했어.
- ㉣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신대요.

- ①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②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
- ③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
- ④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 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정답 ④

[해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의존명사이다. 의존명사는 ‘것, 바, 줄, 수, 뿐’ 등과 같은 형식성 의존 명사와 ‘축, 개, 대, 채’ 와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해설 : ①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대명사에 대한 설명)

- ②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 (명사의 하위 갈래)
- ③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수사의 하위 갈래)

2. 다음 중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형사와 부사는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 한다.
- ②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 ③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 ④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로서,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가 있다.

정답 : ②

[해설] 우리 나라 현행 문법에서는 접속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데’ 등은 접속 부사이다.

- ① 관형사와 부사 = 수식언(주로 꾸며주는 기능)
- ②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접속부사
- ③ 감탄사 = 어간과 어미가 없으므로 활용불가 (예 : 어머! 우와!)
- ④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

3. 다음 한자어와 한글 독음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尿素 - 요소
- ② 匿名 - 익명
- ③ 理髮 - 이발
- ④ 雙龍 - 쌍용

정답 : ④

[해설] 합성어와 접두파생어만이 2번째 어근의 첫머리가 다음법칙이 지켜진다. 龍은 고유어와 결합하면 어근처럼 인식되지만 한자어와 결합하면 접미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다음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雙龍 - 쌍룡, 黑龍 - 흑룡, 아기용.

4. 다음 <보기>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영선: 냉장고에 토마토 ㉠재워 놔다. 먹어.
철이: ㉡깨우면 돼?
영선: 필?
철이: 개그가 ㉢안 통하네.
영선: 뭐? ㉣자는 거 먹어. 눈치 ㉤못 채게.

- ① ㉠은 ‘눈이 감기며 의식 없는 상태가 되어 활동하는 기능이 쉬는 상태로 되다.’를 뜻하는 ‘자다’ 동사의 피동사이다.
- ② ㉡은 ‘잠이나 술에서 깨다’를 뜻하는 ‘깨다’ 동사의 사동사이다.
- ③ ㉢과 ㉣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이다.
- ④ ㉤은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정답 ②

[해설] ㉡은 ‘잠이나 술에서 깨다’ 를 뜻으로 ‘깨게 하다’ 로 의미가 해석될 수가 있으므로 ‘깨다’ 동사의 사동사이다.

- ㉠ ‘재우다’ 는 ‘자다’ 라는 동사에 사동접미사 ‘이’ 와 ‘우’ 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 ㉢ ‘안’ 은 의지를 부정하는 부정부사이며 ㉣ ‘못’ 은 능력을 부정하는 부정부사이다.

5. 다음 우리말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국어 시기에 방점 표기 및 ‘ㅇ’과 ‘ㅅ’이 문자 체계에서 사라진다.
- ② 고대 국어의 향가에서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은 분명히 확인되며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 ③ 중세 국어 시기에 ‘되, 기르’은 각각 한자어 ‘산(山), 강(江)’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고유어가 눈에 띄게 없어지고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존칭의 호격 조사 ‘하’,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우-',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주체 높임법), '-스 ㄴ ㅅㅈ ㄴ ㅅㅈ ㄴ-'(객체 높임법), '-오 -ㄹ'(상대 높임법)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③ 한자어와 우리말이 경쟁하여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은 신라시대 경덕왕(10c)때 부터이다.

해설 : ② 고대 국어의 향가의 표기수단은 향찰이다. 향찰은 실질형태소는 뜻을 차용하고 형식형태소는 음을 차용하여 문장 전체를 완성할 수 있는 종합표기수단이었다. 따라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주로 대화상황에서 쓰이는 청자를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상대 높임법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④ 중세 국어 문헌 중에서 '용비어천가'를 살펴보면 (특히 125장)존칭의 호격 조사 '하',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우-',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주체 높임법), '-습-, -줍-, -습-'(객체 높임법), '-이-'(상대 높임법)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습-, -줍-, -습-'(객체 높임법),은 16세기 소학언해에서도 나타난다.

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철이는 아이가 아니다.
- ㉡ 영선이는 엄마와 닮았다.
- ㉢ 철이는 영선이를 사랑한다.
- ㉣ 철이가 영선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 ① ㉠에서 '아이가 아니다'는 서술절이다.
- ② ㉡에서 '엄마와'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 ③ ㉢에서 '사랑하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에서 부사어 '영선이에게'와 목적어 '편지를'의 위치를 바꾸면 ㉣은 비문(非文)이 된다.

정답 : ②

해설 : ㉡에서 '엄마와'는 부사어이지만 '체언 + 조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략하면 명확하게 의미전달이 되지 않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오답해설 : ① ㉠에서 '아이가 아니다'는 '주어 + 보어 + 서술어'의 관계로 된 출문장이다.

- ㉢ '철이는(주어) 영선이를(목적어) 사랑한다.' - '사랑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
- ㉣ 철이가(주어) 영선이에게(필수부사어) 편지를(목적어) 보냈다.
- '보내다'는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자리 서술어로서 필수부사어와 목적어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

7. 다음 <보기>에서 사이시옷에 대한 표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만을 고른 것은?

< 보 기 >

- ㉠ 대가 (○) / 댓가 (×) (代價)
- ㉡ 초점 (○) / 촛점 (×) (焦點)
- ㉢ 뒤풀이(○) / 뒛풀이(×)
- ㉣ 아래층(×) / 아랫층(○)
- ㉤ 해님 (×) / 햇님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

[해설] : ㉠ 대가 (○) / 댓가 (×) (代價)

㉡ 초점 (○) / 촛점 (×) (焦點)

㉠과 ㉡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라서 사이시옷 현상이 생기더라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 뒤풀이(○) / 뒛풀이(×) ㉣ 아래층(×) / 아랫층(○)

: ㉢㉣의 경우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 ㅅ을 쓰지 않는다는 현행 문법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층, 뒤풀이가 맞다.

㉤ 해님 (×) / 햇님 (○)

: '해(어근)+님(접미사)'는 파생어이다. 따라서 사이시옷 현상이 생기지 않으며 따라서 사이시옷도 표기하지 않는다.

8. 다음 중 어법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 ②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 ③ 글을 잘 쓰려면 신문과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 ④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정답 : ①

해설 :

- ②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한다.
- ③ 글을 잘 쓰려면 신문을 자주 보고, 뉴스도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 ④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영선이는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9.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계 3위의 갑부(甲富)는 과연 누구일까?
- ② 그분은 청년들의 애환(哀歡)을 감싸 주고 위로해 주었다.
- ③ 공무원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김 부장의 사위는 훤칠한 키에 폭넓은 교양을 갖춘 재원(才媛)이다.

정답: ③불편부당(不偏不黨) :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는 공평함.

[해설] : 갑부(甲富) : 첫째가는 부자라는 의미

애환(哀歡) :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재원(才媛) :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이는 키가 장대만큼 크다.
- ②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 ③ 영희는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다.
- ④ 볼펜, 연필, 지우개 따위를 문구류라 한다.

정답 : ③

[해설] 영희는 합리적이기(서술격조사) 보다(조사이므로 앞의 말에 붙여써야 한다.)는(보조사) 감정적이다.

- ① 철이는 키가 장대만큼(보조사) 크다. : 만큼은 체언 뒤에서 보조사로 사용된다.
- ②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 뿐은 체언 뒤에서 보조사로 사용된다.
- ④ 볼펜, 연필, 지우개 따위(의존명사)를 문구류라 한다. : 의존명

사는 형태상 자립하므로 띄어써야 한다.

11. 다음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꽤가 길거리애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죽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츄츄스렵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림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누어 보았다.

- 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고
- ②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
- ③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 ④ ㉣곤충의 한 종류.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 ③

[해설] 츄츄스렵다.: 너절하고 염치가 없다.

12. 193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시기에 발표된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신소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 ② 이 시기에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으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인들이 친일적인 작품을 쓰거나 붓을 꺾었다.
- ③ 김기림, 정지용 등의 시인들은 감성보다 지성, 리듬보다 이미지에 호소하는 주지주의 경향을 바탕으로 한 시를 창작하였다.
- ④ 이 시기의 시는 3.1 운동의 좌절로 인한 허무와 패배 의식의 영향으로 감상적·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을 보였으며, 황석우, 홍사용, 박영희 등이 대표적이었다.

정답 ③

[해설] ① 1910년대 ② 1940년대 ④ 1920년대

13.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을 찾을 수 있다.
- ② 이 신화를 통해 우리 신화의 원형과 당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천지 창조 신화이다.
- ④ 환웅과 웅녀가 결합하여 시조인 단군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천손에 의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단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우신 분이다. 단군 왕검이라고도 하는데 단군은 종교적 지도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이다. 다만 천지창조와는 거리가 멀다.

14. 다음 (가)와 (나)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 ① (가)의 시는 (나)의 시를 패러디 한 작품이다.
- ② (가)의 시 2연에 나오는 ‘전파’는 (나)의 시 2연에 나오는 ‘꽃’과 대응한다.
- ③ (가)의 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사랑이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시는 (가)의 시에 비해 발랄하고 감각적이다.

정답④

[해설]

(나)의 시는 인간의 감정을 억제 조절하고 지적인 면에 충실한 시로서 주로 지성의 표현을 주로 하는 주지시입니다. 회화성을 중시하는 경향도 주지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의 시에 비해 발랄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해설] ① (가)의 시는 (나)의 시의 형식을 패러디(모방) 한 작품이다.

- ② (가)의 시 2연에 나오는 ‘전파’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 가치)는 (나)의 시 2연에 나오는 ‘꽃’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 가치)과 대응한다.
- ③ (가)의 시는 마치 라디오처럼 사랑을 꺾다 켜다하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15. 다음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鳥獸哀鳴海岳嘯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
檣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秋燈掩卷懷千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

-황현, 「절명시」

- ① 이 시는 『매천집(梅泉集)』에 실려 있다.
- ② ‘새’와 ‘짐승’, ‘강산’은 시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③ 역사의 시련을 맞이한 지식인의 진정 어린 고뇌가 나타난다.
- ④ 고려 멸망의 소식을 접하고 순절(殉節)한 황현이 자결을 앞두고 쓴 시이다.

정답 ④

[해설]

고려의 멸망이 아니고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뒤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앞두고 쓴 시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 16~17번)

그리고 보면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나는 문학이라는 명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진실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들, 세대의 흐름을 좇다가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려 했다. 그 속에는 집에 대한 이해, 가치와 사고방식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힌 시약처럼 정직하게 녹아들어 있었으니, 문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문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은 내 가슴 어느 한군데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흩뿌려졌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인연이 닿는 집 안 어느 구석에 제법 향기 짙은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설계를 하면서 나는 ‘이 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벽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매번 묻지만 대뜸 답할 만큼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하늘에 묻고, 땅에 묻고, 사람에게 묻다 보면, 그 틈새마다 수많은 시인이 내 가슴속에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저마다 움트느라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수련거림이 굳건한 동기가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어느새 건강한 집 한 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

늘 다짐하는 말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 어찌 방다운 방 하나를 제대로 구축해 낼 수 있겠는가? 모양이야 그럴듯하게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순으로 그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마침내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길동무가 되어 주고 깊이를 더해 가며 교체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겐 건축과 함께할 만한 문학이 있어 괴롭고, 슬프고,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 우여곡절의 한복판에서 내 땀에는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살펴보느라 늘 여념이 없다. 그 둘 사이야말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부박하기 그지없는 세태를 거스르며 삶의 지표로 부단히 증거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문학과 건축의 동상이몽! 그 둘을 곱게 접어, ‘그 자리, 그런 집’이 뚜렷이 찍힌 데칼코마니를 완성하고 싶다.

16. 윗글의 서술 방식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학과 건축 간의 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문학과 건축의 관념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다.
- ④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를 통해 두 대상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함으로써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라는 중심문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은이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 ② 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보다 질 높은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다.
- ③ 삶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④ 문학과 건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정답 ④

[해설]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없이 모순으로 그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마침내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가 주제와 관련 깊은 내용이다. 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답이다. 이 글은 삶의 진실의 추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18. 다음 <보기> 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시어가 적절하게 짝 지어진 것은?

— < 보 기 > —

까마득한 날에
()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曠野)」

- ① 땅 - 국화 - 영웅(英雄)
- ② 하늘 - 매화 - 영웅(英雄)
- ③ 땅 - 국화 - 초인(超人)
- ④ 하늘 - 매화 - 초인(超人)

정답 ④

해설 :

하늘(신성한 공간) - 매화(조국의 광복) - 초인(광복된 조국의 후손들)

19. 다음 빈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편견. ‘이민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일꾼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 준다. 더구나 건축업이나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도 없다. 인재가 재산인 나라 대한민국은 곧 인재가 부족한 나라가 된다.

(중략)

국제 연합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50년에도 중간 나이가 41.1세인 젊은 나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같은 해 중간 나이가 53.9세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미국의 비결은 간단하다. 이민이 미국을 젊게 한다. 우리도 발상을 바꾸면 된다. 일본도 최근 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노인들은 아픈데 간호할 사람이 없고, 어찌겠는가? 독일도 1960년대 외국 인력 교체 순환 정책을 썼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반발했다. 숙련공을 내보내고 미숙련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민자들이 정착할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독일이 혼란에 빠졌다거나 독일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후문은 없다. 오히려 일꾼이 문화까지 들여오니 () 아니겠는가? 이주 노동자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 ① 一刀兩斷 ② 一魚濁水
- ③ 一望無際 ④ 一舉兩得

정답 ④ 一舉兩得 :
 - 한 일 舉 들 거 兩 두 양(량), 냥 양(냥) 得 얻을 득

- ①한 번 들어 둘을 얻음
- ②한 가지의 일로 두 가지의 이익(利益)을 보는 것

[해설] ① 一刀兩斷 :
 - 한 일 刀 칼 도 兩 두 양(량), 냥 양(냥) 斷 끊을 단

한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일이나 행동(行動)을 선뜻 결정(決定)함의 비유

② 一魚濁水 :
 - 한 일 魚 물고기 어 濁 흐릴 탁 水 물 수

물고기 한 마리가 큰 물을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악행(惡行)으로 인(因)하여 여러 사람이 그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비유(比喩·譬喩)하는 말로 쓰임

③ 一望無際 :
 - 한 일 望 바랄 망/보름 망 無 없을 무 際 즘음 제/가 제

아득하게 끝없이 멀어서, 눈을 가리는 것이 없음

2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미국 정부는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유출자 색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① 記密 - 類出 - 認知 - 嚟出
- ② 記密 - 類出 - 認智 - 索出
- ③ 機密 - 流出 - 認知 - 索出
- ④ 機密 - 流出 - 認智 - 嚟出

정답 ③ 機(틀, 기)密(빡빡할, 밀) - 流(흐를, 유)出(날, 출) - 認(알, 인)知(알, 지) - 索(찾을, 색)出(날, 출)